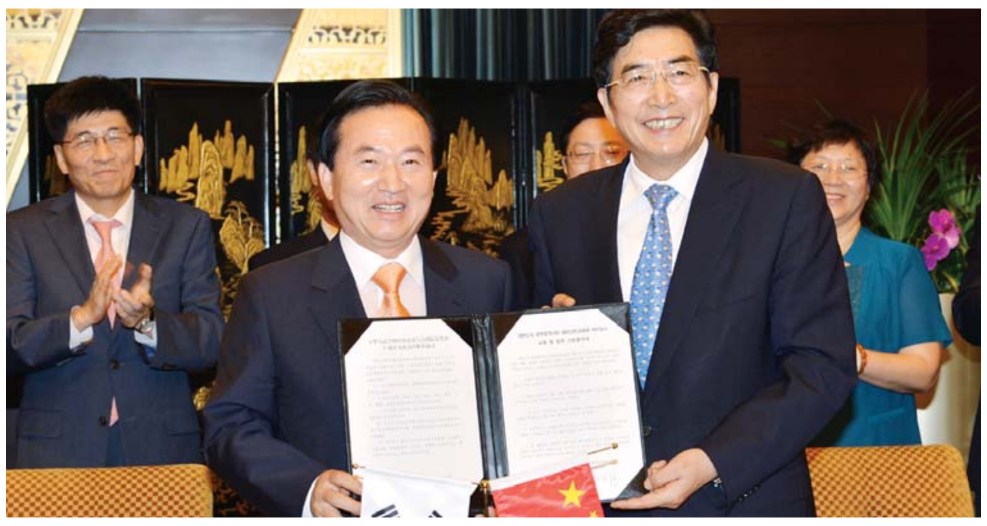


광주시·베이징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광주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26일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베이징 국제무역산치호텔에서 궈진룽 베이징시장과 협약식을 하고 있다. 강 시장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강남에 친환경식품 유통센터 전남도는 26일 전남산 농수축산물의 수도권 유통 거점 역할을 할 '전남 친환경식품 유통센터'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개장했다. 개장식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지사가 민주통합당 배기운, 이낙연, 김광진 의원과 함께 판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전체면적 1만2684㎡,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인 유통센터 건립에는 115억원이 투입됐다. 〈전남도 제공〉

■ 광주시·전남도 2년간 일자리 얼마나 …

공공·민간부문 성과 5만6000개 창출

광주시

광주시는 민선5기 전반기 2년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5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강운태 시장이 민선5기 출범 당시 목표로 제시한 '임기 내 총 10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약속과 비교하면 전반기 목표인 50%를 이미 초과달성(54.2%)한 셈이다.

◇**민간부분**=광주시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는 지난 2년간 1만872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이는 민선5기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애초 목표치인 3만8770개의 28% 수준으로, 국내외 경기 악화 및 공장 자동화에 따른 기업구조 고도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됐다.

분야별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2689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객센터에서 1803개, 광산업 1744개, 자동차산업 1453개, 정보가전산업 1247개, 문화산업 1184개, 금형산업 432개, 그린에너지산업 168개, MICE산업 152개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그러나 국내외 기업유치 성과 등이 가시화되는 민선5기 후반기에는 민간 일자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부문**=민선5기 목표치인 6만4011개의 70%수준인 4만481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다. 지역문화자산을 활용한 수제공방 육성, 청년창업·벤처 활성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재정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다.

분야별로는 고객센터와 수제공방 등 여성고용 친화적 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여성일자리 3363개를 만들어냈으며, 창업공모사업 유치와 청년 창조기업 육성 등을 통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1156개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등 재정일자리 2만1122개 그리고 손자녀돌보미,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1만9483개 등을 만들어냈다. 또,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육성으로 1491개를 창출했다.

◇**취업자 증가율**=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광주지역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3.6%였다. 전년도 1·4분기 당시 취업자는 64만6000명이었지만 올해에는 66만9000명으로 1년 새 2만3000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의 증가율은 1.9%였으며, 전국 평균도 2.0% 증가한 데 그쳤다.

◇**투자유치 현황**=지난 22일 현재까지 민선5기 전반기 2년간 국내외 24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3조3439억원의 투자와 1만4464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투자한 기업은 국내외 86개 기업으로 실투자율은 35.8% 수준이다. 또, 현재까지 투자금액은 3792억원 그리고 고용인원은 185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산업별로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240개 기업 가운데 광산업 등 광주시 주력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55개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39개, 전자 31개, 3D융합 19개, 금형 기업 19개 등의 순이었다. 실제 투자율로 보면 자동차 부품 기업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금형 기업이 47.4% 전자·가전 기업이 41.9% 광·LED기업이 27.3%를 각각 기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수출 '괄목 성장'

광주시 133억 달러·전남도 400억 달러 돌파

민선 5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수출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시의 수출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전남도는 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광주시**=지난해 133억4000만 달러를 달성, '수출선도형 생산도시'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 수출액은 지난 2009년 8883억달러에 이어 2010년 115억81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 5월 말까지 56억5800만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 54억4400만달러에 비해 3.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경우 한·EU,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고무타이어, 기계정밀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지난 2011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51억86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 24억8800만 달러, 가전제품 21억700만달러, 기계정밀제품 16억8600만달러, 고무제품은 12억8500만달러의 수출액을 각각 기록했다. 수출 대상 국가별로는 34억2200만달러어치를 기록한 미국이 가장 높은 25.6%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필리핀 6.5%, 중국 6.4%, 일본 5.0%, 싱가포르 4.3%, 캐나다 4.0%, 브라질 4.0%, 러시아 2.1%, 베트남 2.1% 순이었다.

◇**전남도**=화학, 철강, 석유 등 주력 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223억달러였던 총 수출액은 해마다 늘어 2010년 304억달러, 2011년 400달러로 성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전체 수출액의 20.5%로 그쳤던 중소기업 수출비율은 지난해 30,3%로 증가했다.

지난 5월 한 달간 전남지역 수출실적도 36억5000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0%가 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16개 시도 평균 증가율은 1.07%에 그쳤다. 전남의 올 5월까지 총 수출액은 172억달러다. 이는 전국 7위로 올해 전남도 수출 목표(450억달러)의 38.4%를 달성한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부진으로 전남의 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제품 등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 둔화에도 수출이 늘어난 것은 조선선박 수출이 많이 증가했고, 정밀화학·비료·플라스틱 등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5.5%로 수출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싱가포르 9.2%, 홍콩 7.7% 순으로 나타났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수축산 기업유치…2만6000개 만들어

전남도

일자리 창출은 인구 증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남지역에는 더욱 의미가 크다.

전남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된 70~80년대 연평균 3만5000여명이 도시로 떠났고, 지난 2007년까지도 해마다 1만여명이 타시도로 이주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2009년 4537명으로 인구 감소폭이 줄었고, 민선 5기 들어 지난해 4000여명으로 감소세가 더욱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 5기 이후 전남도는 해외 투자유치 활동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외내 기업들을 잇따라 유치했다. 지역 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LED와 녹색산업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며 관련 기업의 창업과 이전도 이끌어 냈다.

지난 2010년부터 전남도가 유치한 기업은 691개. 이를 통해 2만60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농수축산물 관련 기업 유치가 많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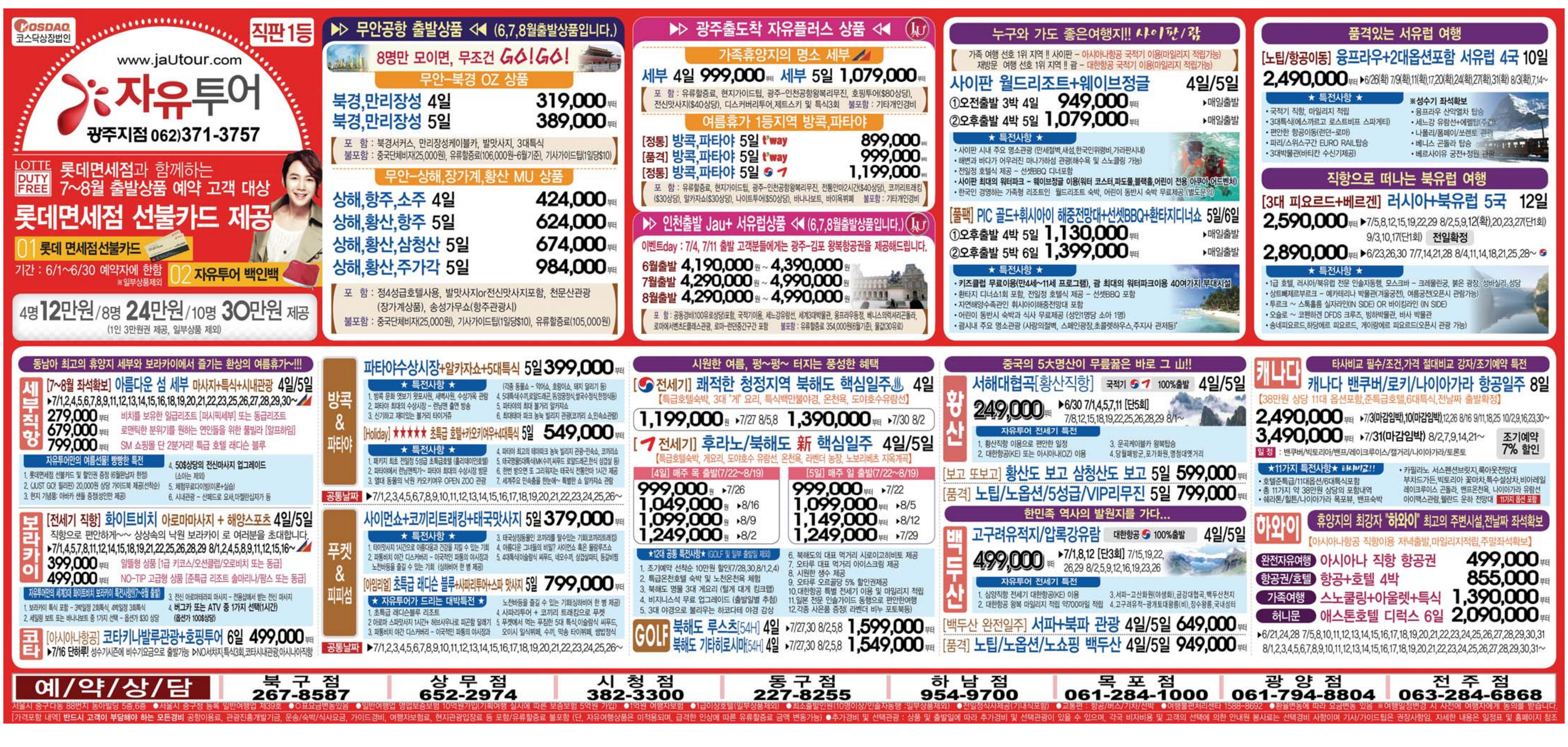
이 기간 전남도의 유치 기업은 업종별로 농수축산물 가공기업 171개, 녹색성장산업 77개, 신소재 등 미래성장산업 157개, 철강·화학 187개, 기타 99개였다. 여수·광양의 철강·화학 중심의 기업 분포가 친환경 농수축산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기업으로 다양해졌다.

덩달아 관련 일자리도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민 996명이 전남으로 이주했고, 도시민 이주 규모는 지난 2009년 924명, 지난 2010년 1019명, 지난해 147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노동집약적 기업체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가진 특성과 가능성을 활용해 농수축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농업 인구를 늘려 일자리 확대와 인구수 증가를 동시에 달성한 셈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전남이 가진 가능성 중 하나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업체를 유치해 젊은이들이 관련 분야에서 창업을 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光日만평 - 김종두

달리 '이명박근혜' 던가?!